

가톨릭대학교 2016학년도 모의논술 논술고사 문제지(인문/사회계열)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 (가)에 제시된 분석방법 중 (나)에 나타난 일탈행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고, 나머지 분석방법은 부적합한 이유를 제시하라. (띄어쓰기 포함 350~450자 / 40점)

[문항 2] (가)에 제시된 일탈행동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다)에 등장하는 노무 과장·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진정서를 낸 ‘아들’의 행위를,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노무 과장·젊은이들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50~450자 / 40점)

[문항 3]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에 나타난 현상이 발생하는 까닭을 논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200~250자 / 20점)

(가)

대부분의 인간은 사회 규범이나 제도 등에 의해 사회에서 기대되거나 규정된 대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간혹 사회에서 규정한 제도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데, 이를 일탈행동이라고 한다. 개인의 일탈행동은 개인적 긴장을 야기하고 사회적 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 일탈행동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제시된다.

기능론에서는 사회의 각 요소들이 유기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합의된 가치와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개별 사회 구성 요소들이 각각에게 주어진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상호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가치와 규범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낮아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어느 개인 또는 집단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 등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여 사회화에 실패하였을 때 일탈행동이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갈등론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과 계급 갈등이 일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의 물질적 탐욕을 조장하는데, 이러한 탐욕을 만족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법을 위반하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범죄는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로서 권력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일탈행위의 본질이 그 자체의 특별한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하는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타자들이 일탈행위라고 규정할 때 그 현상은 일탈행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언어와 상징을 매개로 한 상황, 일탈행위자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타자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일탈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나)

고대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는 여행 중에 경험한 문화의 다양성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칼라시아 족에게 죽은 조상의 시신을 먹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레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신을 화장하였으며, 화장이 시신을 처리하는 자연스럽고 알맞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다리우스는 세상을 정교하게 이해하려면 이런 문화 간의 차이를 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그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궁중에 우연히 들른 몇 명의 그레시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죽은 조상의 시체를 먹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레시아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대답하기를,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칼라시아 사람들을 불러, 그레시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죽은 조상의 시체를 화장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칼라시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제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다.

(다)

진정서

성창 비료 석교 공장은 연간 사십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夜陰)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수천(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어(出漁)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이하 생략)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석교 공장 노무 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에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유월에는 풍천 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었습니다. 풍천 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시켜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의 각종 새 삼백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더니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 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뭐 제 놈이 실신했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하게 말했다.

“국민 소득 일천 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다.

(라)

15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에게 세계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세계가 평평한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끝에 다다르면 결국 떨어지게 된다고 믿었다. 그들에게 세계는 질서가 정연하고 닫힌 공간이었던 것이다. 지리학과 인류학은 다른 근대지식체계, 학문과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 해인 1493년 출간된 『뉘렘베르크 연대기』 등 당대 유럽의 주요 책자에 소개된 세계지도는 고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나오는 상상적 대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책에는 천지창조로부터 일곱 시대로 구분되는 성서 이야기가 그림으로 곁들여진, 상상을 바탕으로 유럽 일부와 아프리카 대륙만 부분적으로 묘사한 지도 등이 실려 있다. 대항해시대 이후부터 신대륙과 중국, 인국 등이 하나씩 세계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유럽인들은 영국을 인도보다 더 크게 그렸으며, 유럽은 다른 대륙보다 몇 배나 더 크게 그려졌다. 이후 유럽인들이 채택한 메르카토르(Mercator)식 지도 작성법에서도 유럽의 면적은 여전히 크게 반영되었다.



하르트만 슈델(Hartmann Schedel)의 『뉘렘베르크 연대기』에 소개된 세계지도